에너지 · 자원개발 분야, 우수인재 배출 나서

전북대 공대 자원 · 에너지공학과, 에너지 · 자원개발 분야 국제협력 공동연구 추진

전북대학교 공대 자원·에너지공학과가 최근 '전북대학교 부설 에너지·자원개발 연구소'(연구소장 송영수 교수)를 개소하고 에너지와 자원개발 분야 산학협력과 공동연구 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 부설 에너지·자원개발 연구소는 광물자원개발연구부를 비롯해 친환경대체에너지연구부, 순환자원처리연구부, 저탄소에너지전환연구부, 석유자원개발연구수 등을 두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배출에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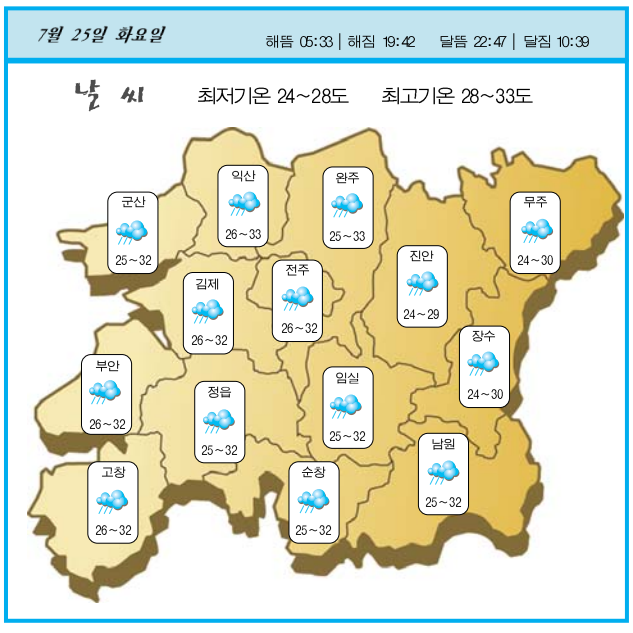
특히 연구소를 통한 산학 간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국제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자원·에너지 관련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국내 자원·에너지 분야의 학문·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산학협력 거점전문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대학교 공대 자원·에너지공학과가 최근 '전북대학교 부설 에너지·자원개발 연구소'(연구소장 송영수 교수)를 개소하고 에너지와 자원개발 분야 산학협력과 공동연구 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송영수 연구소장은 "연구소 설립은 한국가스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SK E&S)와 함께 자원·에너지 분야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맞춤형 신진 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이 하나 되는 산학협력의 선도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전북대의 자원·에너지공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도 앞장서고 있다"며 "산학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 산업을 이끌 맞춤형 인재 육성과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꽃향기 가득한 '꽃거리' 조성

전주시, '주민참여 생태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화훼인,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구도심을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나선다.

꽃거리가 만들어질 경우, 구도심에 활기가 넘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가고 있는 전주의 이미지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심홍재 서학예술마을촌장, 김홍석 한옥마을 지역주민대표, 윤기정 전주화훼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도서관 강당에서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꽃거리 조성은 한옥마을 은행로와 서학예술마을의 내 집 앞 내 골목을 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꽃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꽃 식재에 필요한 화분을 설치키로 했고, 전주화훼인연합회의 경우 꽃과 관련된 컨설팅을 비롯해 꽃 관리 등 교육과 상담을 맡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간담회에서는 꽃거리 조성에 필요한 꽃 식재와 관리 등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로 한옥마을과 서학예술마을이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가득한 꽃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은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전주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터 곳곳을 생태공간으로 디자인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용기자

군산고, 학기말 진로 역량 주간 운영 '화제'

수시 전형의 확대로 내신의 비중이 훌쩍 커져버린 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기말 풍경은 무기력하기까지 하다.

2차고사도 끝난 학기말. 이 기간을 교육 누수 기간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여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는 학교가 있어 화제다.

군산고등학교(교장 송일섭)는 이 시기를 진로 역량 주간으로 정하고 진로, 기본 소양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고 있다.

대학의 인문학 강좌·이공계 강좌 유치, 대학 학과 탐방, 직업 탐방, 현직 판사가 말하는 법조인의 삶 특강, 영화 관람, 화해의 날 편지 쓰기 등이 그것.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에 골라 참여하여 진로 역량을 키우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 활동란을 충실히 채워간다.

그 중의 백미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상황별 영어 역할극 대회. 2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행평가를 위해 직접 쓴 영어 연극 대본을 무대에 올려 연기하는 경연을 펼쳤다.

미숙한 연기나 무대 설정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들이 쓴 대본이 무대에 올려지는 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여기에 이 날을 위해 며칠을 준비했다는 송 교장의 영시 낭독까지 어우러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졸업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수업 이후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따가운 시대에 학기말은 단순한 '잉여'의 시간이 아니라 풍성한 교육과정 운영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간임을 군산고의 이런 노력들이 증명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대, 타 지역 교사 초청 입학전형설명회 '호응'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우수인재 발굴·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서울·수도권과 강원 및 전남권 등 타 지역 자문교사들을 초청해 대학 및 학부(과)를 소개하고 입학전형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북대는 22일부터 23일까지 고교-대학 간의 유기적 연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확대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2017년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진로진학 담당교사 직무연수 겸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 자문교사 초청 학부(과) 소개 및 입학전형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북대는 농업경제유통학부, 지미카터국제학부, 화학공학부, 수의학과 등의 유망 학부(과) 소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입학전형 설명회가 동시에 이뤄져 타 지역 교사들이 우리대학을 한눈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해은 기자

오늘 대입 수시 모의면접캠프 개최

제6회 대입 수시 모의면접캠프가 오늘 개최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대입 면접전형의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제6회 대입 수시 모의면접캠프'를 이날 오전 10시 전주 우림중학교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 면접캠프는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 접수한 고3학년 4백여명이 참여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면접에 응하는 태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서류 확인 등을 숙지하게 되며 3개 그룹을 나눠 실전 면접을 하게 된다.

면접관 2명과 수험생 1명이 면접하는 실전 면접시간에는 지원동기, 학과 선택 관련 질문 등을 한다.